

언어학의 이론정립과 연구방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 윤 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1. 서 론

언어학의 연구대상은 인간의 언어이며 그 목적은 인간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 있다. 언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고와 인간의 창조적 의식의 메커니즘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학은 그 시대의 지배적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전해 왔다. 그 결과 언어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학제간의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의 목적이 다각적 관점에서 언어의 본질을 규명하고 현재까지 언어학의 이론과 연구방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언어의 보편성, 언어변화, 언어체계 및 언어능력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편문법, 역사-비교언어학, 특히 구조주의언어학, 변형생성문법의 이론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분석, 비판하고자 한다.

언어학은 경험적, 철학적 학문이며 연구방법은 실증주의적 방법(빠를)과 비실증주의적 방법(랑그)으로 대별된다. 언어사의 큰 흐름을 보면 현재까지 언어학은 “언어기술과 일반이론” 그리고 “언어비교와 언어변화”라는 두 바퀴의 순환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언어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언어의 모든 이론과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은 중요한 작업이다.

* 이 논문은 1997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연압)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짐.

언어사는 언어의 여러 현상 중에서 그 시대의 인식론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추출하여 그 이외의 다른 가능한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된 현상만을 기술하려는 시도의 연속으로 이해된다. 언어학의 이론과 연구방법이 다른 학문보다도 다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연구대상인 언어를 어떤 관점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 언어학의 이론과 연구방법이 달라진다. 역사-비교언어학은 언어의 역사성에, 구조주의언어학은 체계의 동질성에 그리고 변형생성문법은 언어능력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언어학은 언어를 기술하고 실제적 목적에 사용하려는 초기의 경향에서 벗어나 연구의 대상을 모델화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즉 추상화함으로써 비로소 현대 언어학의 정초를 마련했다. 최근 언어학의 급속한 발전은 언어의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언어이론 정립에 기초한다. 또 한편 언어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론은 복잡한 언어현상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얻기 위한 연구방법이며 현대 언어학의 발전요인이 된다.

본 논문의 집필 목적은 변증법적으로 발전된 어떤 통일된 언어이론이나 연구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고 언어학의 다양한 연구모델 즉 이론과 연구방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체계화하는 데 있다. 필자는 본 연구과정에서 특히 언어이론 발전과 언어철학 사조의 영향관계를 논술하고 언어학의 이론정립에 인접학문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명백히 밝히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2. Port-Royal 문법학과

르네상스 이후 유럽사회에서는 물질적 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대변혁이 일어났다. 이 시대에 지리적 발견, 자본주의적 생산방법, 인쇄술의 발견, 교육기관의 확충 등 서유럽 근대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 한편 이 시기에는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고 국민적 자의식이 강화되었으며 또한 신학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철학적 사조의 등장과 더불어 모든 학문적 명제는 객관적이고 이상적 추론에서부터 유도되었다.

17세기 후반기에 보편주의적 경향은 언어학에서 보편문법¹⁾이라는 언어이론으로 나타난다. 또 한편 구체적 언어기술과 언어철학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는데 결국 이것은 1660년 Port-Royal 문법학파에 의해서 결실을 보게 되었다. Port-Royal 문법의 집필목적은 언어현상 그 자체를 해명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언어현상의 중요한 특성을 기술하는 데 있다. 이 문법서가 합리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교육적 목적을 지향한다는 사실은 집필목적에서도 잘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불어를 중심으로 희랍어, 라틴어, 고대 히브리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그리고 약간의 영어와 독일어가 고찰과 분석의 대상이 되었으며 동양의 언어에 관해서도 한 번 언급되었다. 저자들은 이 언어들만 분석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언어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충분히 유도해 낼 수 있다고 믿었다(Amirova et al. 1975-Meier 1980, 192).

1660년 철학자이며 또한 논리학자인 Arnauld와 문법학자이며 동시에 문헌학자인 Lancelot의 *Grammaire générale et raisonnée* 보편문법²⁾의 출판과 더불어 언어학의 이론과 연구방법은 본질적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언어학은 하나의 고유한 독립적 학문으로서 터전을 마련했다. 보편문법은 새로운 언어학적 개념으로서 문법, 사전편찬, 민족언어학, 논리학, 철학 등 모든 관련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보편문법은 자연어의 형식과 기능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그 공통성과 특성을 발견하려는 시도였을 뿐 아니라 또한 일반언어학 정립의 초석이 되었다. Port-Royal 문법은 일련의 언어사실의 일반화를 통해서 종합적 문법체계를 정립하려는 전형적인 시대적 사조를 반영한다.³⁾

-
- 1) 보편문법 이론정립의 가능성은 William of Conches의 Priscian에 관한 해설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 2) 보편문법은 Port-Royal 문법이라고도 하는데 1830년에 다시 인쇄되었으며 Bacon의 철학적 문법, Descartes의 일반적(철학적) 인공어 그리고 Leibniz의 보편적 상징언어와 구별된다. Saussure에 의하면 전통문법은 과학적이 아니라고 비판을 받지만 실제로는 Bopp의 비교문법보다 연구대상이 잘 정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이론도 더 완벽하다.
 - 3) 이 경우 세계를 질료와 그 속성으로 설명하려는 Descartes적 물리학과 철학의 질료적 욕구가 절대적으로 나타나지만 언어이론의 특별한 해석과정에서는 역시 합리주의적 사상이 발견된다.

보편문법 학자들은 일반화의 원칙에 따라 언어자료를 토대로 언어구조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문법체계를 보편화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의 이론은 논리 정연하고 명확하며 간결한 문체와 정확한 표현법도 또한 그들의 특성이다. 그들은 다양한 스콜라철학적 개념(예를 들면 언어의 잠재적 특성과 상태에 관한 가설)에서 벗어나서 언어이론과 언어행위의 일반적 법칙을 확증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보편주의와 합리주의의 토대 위에서 스콜라철학적 규범이나 독단적 가설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미 일반적으로 인정된 Descartes적 가설을 근거로 그들의 이론을 전개했다.

그러나 Port-Royal 문법체계와 17, 18세기의 언어보편주의 전통의 테두리 안에서 완성된 언어이론 체계의 단점으로 다음 사항들을 열거할 수 있다(ibid. 222f.):

- 1) 물론 보편문법의 체계 내에서도 언어자료의 구조화에 관한 원칙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원칙이 어느 한 언어자료의 상이성과 그 언어에서 나타나는 음성과 의미의 관계에 관한 특성은 표현할 수 없다.
- 2) 보편문법 이론이 형식논리의 경계를 뛰어 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와 언어행위 사이의 연결모델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Port-Royal 문법은 언어에 관한 지식의 축적과 발전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또한 언어학을 하나의 독립적 학문으로 정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이미 보편문법의 영향을 받거나 그 이론을 계속 발전시킨 문법서의 출간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며 언어학의 연구방법은 본질적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동안 100여 년 동안 언어학계를 지배했던 보편문법 이론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사-비교언어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3. 역사-비교언어학

Port-Royal 문법과 병행해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새로운 언어에 대한 기술, 분류 및 연구가 지속되었다. 16세기에 C. Gesner(1555)가 처음으로 *Mithridates*에서 그 당시까지 알려진 모든 언어를 수집해서 개괄적으로 분류하고 비교했다.⁴⁾ Leibniz도 여러 다양한 언어의 어휘수집과 문법적 기술을 대단히 중시했다. 이 시기에 러시아, 스페인,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도 다국어 사전을 편찬했다. 특히 러시아의 Katherina II는 러시아어 어휘목록을 여러 학자들은 물론 러시아 공관이 있는 여러 나라에 보내어 이에 상응하는 200여 개 언어의 어휘목록을 작성했다.

또 한편 Port-Royal 보편문법 학자들도 그 당시 유럽제어 체계의 비교를 통해서 품사, 성, 격, 수, 인칭, 서법 등 공통적 문법범주와 의미의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표현 면에서 여러 상이한 언어의 문법적 형태와 어휘의 사적 의미를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과 표면상의 기준에 따라 언어를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 결과 비교대상이 된 언어의 실제자료를 토대로 언어 체계를 분석, 비교하는 비교언어학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다시 말해서 Port-Royal 문법학파는 비교의 토대로써 개념체계를 설정하고 일반적 기준에 따라 상이한 언어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의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언어현상의 비교방법에 관한 일반적 원리를 제공했다(Amirova et al. 1975-Meier 1980, 218).

엄밀한 의미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 언어비교의 방법은 Bopp에 의해서 정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⁵⁾ 역사-비교언어학은 언어철학, 언어 발전론, 구체적 언어기술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이론이다. 그 연구영역은 처음에는 인구어

4) 지리적 발견에 의해서 16세기~18세기에 아프리카어, 아시아어, 아메리카어, 오스트레일리아어 등이 유럽에 알려졌다.

5) Meillet는 Columbus가 인도에 가는 항로를 찾으려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듯이 Bopp는 인구어의 역사적 발견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다가 비교언어학을 정립했다고 했다 (Meillet-Printz 1909, 276).

에 국한되었지만 점차로 다른 언어로도 확대되었다. 현재에도 그 과정은 지속되고 있다. 역사-비교언어학은 일세기 동안 세계의 언어학계를 지배해 온 언어학의 주류이며 또한 현대 언어학의 근간이 되었다.

역사-비교언어학의 초기에는 언어비교가 중심적 연구과제였다. 즉 인구어 개별어들간의 친족관계와 공통조어 재구가 언어학자들의 관심사였다. 친족관계를 규명하고 공통조어를 재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별어에서 일어난 언어변화의 법칙을 발견하고 개별어를 정확히 기술함과 동시에 그 발전과정의 역사를 가능한 한 오래된 문헌을 통하여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언어변화의 여러 현상을 발견하고 또 음운법칙 Lautgesetz과 같은 언어변화의 일반적 법칙을 유도해 낼 수 있었다.

언어의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고찰하고 체계화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경험을 통일된 원리에 따라 체계화한 언어이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한편 언어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론은 복잡한 언어현상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이며 현대 언어학의 급속한 발전의 요인이 된다. 1816년에 제기된 G. Cuvier의 비교해부학 이론은 Grimm, Bopp 등 그 당시 언어학자들의 언어구조에 관한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Ch. Lyell의 *Principles of Geology*(1830~1833)는 증거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증명할 수 없는 전단계의 언어변화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어떤 요인에 의하여 언어변화를 설명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19세기의 언어학자들에게 방법론상의 원리를 제공했다. 다음에 역사-비교언어학의 이론과 연구방법의 특징을 열거하겠다:

1) 역사주의

언어에 관한 연구를 역사적 방법으로 수행하므로 19세기의 언어학을 역사언어학이라 하며 역사언어학은 합리주의적 태두리 안에서의 순수한 이론과 연역적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경험과 언어기술의 귀납적 방법에 우위성을 두었다. 전통적인 비역사적, 기술적 방법 즉 합리주의적이고 논리적 원칙에서 유도된 언어의 상태기술을 지양하고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의 재구를 바탕

으로 한 언어상태에 대한 설명이 역사적 언어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다.

사회적 조건이나 제도는 일련의 연속적 사건 즉 역사적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역사를 모르면 그 본질도 규명할 수 없다. 말하자면 사회적 조건이나 제도의 설명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구성요소의 연속적인 역사적 발전과정의 정확한 관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Schleicher(1863, 10)는 어떤 사물의 진화과정을 모르면 그것에 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했으며, Paul(1975, 21)은 역사적 발전과정을 모르는 언어를 완벽하게 고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언어이론에 관한 새로운 인식은 19세기말에 개별적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이나 재구에 대한 관심을 언어의 역사적 발생과정에서 일반원칙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환시켰다(Cherubim 1975, 20f.).

2) 실증주의

19세기 초에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이 대두되어 사물을 논리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대 희랍인들에 의하여 이미 시도가 되고 15세기 이래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과정의 관찰과 연구에 주력하게 되었다. 한편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간주되어 등한시되었던 유기체 연구도 활발해졌으며 유기체 역시 물리적, 화학적 과정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살아있는 유기체는 매우 다양해서 어떤 물리적 과정과 같이 추상적 형식으로 나타내기가 매우 힘들다. 사회적 관습이나 시설을 고찰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일련의 연속적 사건에 의해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역사를 모르고는 그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 연구 방법론의 특징은 실증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방법을 과학주의 Szientistisch⁶⁾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주의적 방법을 실증주의적 방법이라고 해야 하는지에 관해

6) 자연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사회 및 정신과학에 적용한 것을 과학주의 Szientismus라고 일컫는다.

서는 물론 의심의 여지가 있다. 실증주의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언어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어떤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는지를 명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실증주의를 직접적 관찰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인식만을 허용하는 엄격한 경험적 연구방법과 혼동하고 있다. 실증주의의 주창자인 Comte의 이론에 따르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언어 연구방법을 실증주의적 방법과 동일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는 사물의 관찰을 통해서만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방법을 실증주의의 연구방법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러나 그가 의미하는 관찰을 통해서 는 사물의 본질, 그 존재형태 또는 존재에 관해서 아무 것도 언명할 수 없다. 그는 이러한 그의 비판적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관찰을 통해서 대상간의 일정한 관계를 기술하는 법칙을 유도해 낼 것을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서 법칙은 종속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와 반대로 가능한 한 다수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학자의 임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법칙은 주관적으로 무엇을 첨가하지도 않고 또 간주간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객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학주의 Szientismus는 어느 한 분야의 학문에서 발견한 법칙성을 다른 학문에 적용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실증주의와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완벽한 의미에서 신실증주의 Neopositivismus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현세기에 철학과 다른 학문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통시언어학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듯하다. 신실증주의는 실증주의의 모든 본질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상을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 현대 논리학의 방법론을 원용한다(Boretzky 1977, 30f.).

3) 심리주의

언어는 자연적 대상과 달리 문화의 산물로서 심리적 요인 및 과정의 작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러한 심리적, 물리적 이중성은 언어를 자연과학과 심리학의 연구대상으로 만든다. 언어가 사회적 작업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 발전이 여러 개인의 협력을 통해서만 이룩된다는 범위 내에서 문화의 산물로서

언어는 결국 사회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Steinthal은 젊은이문법학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 언어를 심리학의 연구 대상으로 간주했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역사적 발전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논리학이 아니고 심리학의 연구대상이다.⁷⁾ 그는 언어학에는 논리학 대신에 심리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언어 외적 설명을 다른 언어 외적 설명으로 대치했을 뿐이다. 그와 더불어 심리학은 철학과 역사의 원리론이 되었는데 그 결과 특수한 언어상의 범주를 파괴시키는 등 위험스러운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900년경 Husserl의 현상학에 의하여 결국 퇴조하였다(Helbig 1973, 20).

4. 구조주의언어학

구조주의 언어학은 젊은이문법학파의 언어이론을 극복하고 정립된 새로운 언어이론으로서 Saussure에서 비롯됐다. 그는 20세기 초기에 사회학자 Durkheim, 심리학자 Freud와 함께 인간행위에 관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정립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그들은 개체적이고 구체적인 개개의 사물에 관한 본질 그 자체를 실증적으로 추구하는 경험주의나 실증주의적 역사주의 세대와 같이 자연과학적 방법만으로 인간이나 인간의 제도, 또는 문화적 유산을 충분히 해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개별적 사건의 역사적 인과관계만을 추구한다면 인간행위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행위는 일반사회적 구조 내에서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관계적 기능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사실은 제도나 가치의 체계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기에 서부유럽 근대 사상사의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화에서 유래되었다. Whitehead가 언급한 바와 같이 19세기의 물질주의라고 칭한 경험주의에서는

7) Steinthal은 Humboldt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그의 저서 *Grammatik, Logik und Psychologie*(1885)를 Humboldt의 내적 언어형태 *innere Sprachform*에 관한 해설서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Humboldt의 개념을 설명했을 뿐 아니라 심화했다.

개별적 사물에 관한 존재론적 본질에 대한 고찰을 가장 중시했지만 새로운 사상체계에서는 상대성이론 즉 넓은 의미에서 사물간의 관계에 기초한 이론에 우위성을 둔다.

Saussure의 구조주의언어학은 20세기 초에 통시언어학에서 공시언어학으로 방향전환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는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1916)에서 언어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인지했고 또한 새로운 설명모델을 제시했다. 좁은이문법학과의 실증적 자료중심의 분석적 방법과는 달리 그는 언어를 하나의 내재적 체계로 간주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1) 언어를 이론상 기호체계로서 랑그와 빠롤, 씨니피에와 씨니피앙으로 구별했고, 2) 공시대와 통시대를 구분하고 공시대의 우위성을 강조했으며, 3) 언어의 통합적, 계열적 관계를 설정했다. 그에 의하면 언어학의 연구대상은 언어 그 자체이고 언어는 공시적 관계 망(관련체계)이며, 언어는 실체가 아니고 형식이다.

Saussure의 *Cours*는 현대 언어학의 발전을 위해 획기적 의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또한 타학문 특히 정신과학과 사회과학의 새로운 연구모델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의 이론에 관해서는 물론 엄격한 개념구분 등 구체적 모순성도 지적되었지만 그의 개념체계는 많은 논쟁을 통해서 대부분 인정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그의 공시적 기술언어학은 아무 의심이나 저항없이 수용되었다.⁸⁾ 다만 이분법에 관해서 약간의 이의가 제시되었을 뿐이다. 임의성과 제도적 특성(관습성)으로 대표되는 기호학의 개념, 체계개념 및 가치개념은 기호학의 하위개념으로서 언어학과 같이 수용되었다. 결과적으로 Saussure가 제시한 패러다임 교체가 이룩되었다. 새로운 이론으로 인식된 것은 물론 세부적 개념이 아니라 표현과 종합의 방법이었다. 구조주의언어학의 기본개

8) Jespersen은 *Rezension des "Cours"*(1916)에서 자기 자신이 처음으로 공시대와 통시대의 공식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Saussure의 이론 그 자체가 낡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Saussure가 Paul의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가 출판되었을 당시 언어학계에서 이미 제시된 문제를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Jespersen은 만일 Saussure가 그 당시 *Cours*를 저술했다면 대단한 명성을 얻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념은 모델화이며 또한 언어의 구조적 전체에 대한 모든 언어요소간의 관계이고 그 목적은 언어구조⁹⁾에 관한 포괄적 기술이다.

Saussure 언어 연구방법의 가장 큰 특성은 이분법¹⁰⁾과 이율배반이다. 그의 이분법 개념 중 랑그-빠롤이 가장 난해할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의 적용 역시 통일적이 아니다. 랑그는 개별어 또는 개별어의 상태나 모든 언어에 공통적 체계성을 나타낸다(Godel 1957, 266). 그러나 랑그는 빠롤의 현상에서만 직접 관찰될 수 있고 빠롤에서 추출될 수 있다. 따라서 언어학의 일차적 연구 대상은 이론적 구성체이다(Mańczak 1969, 171f.). 반면에 빠롤은 개인적이며 서로 다른 개인의 의지나 심리적-생리적 소질을 전제로 개인적 빠롤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Saussure(1983, 32)는 랑그 역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빠롤 못지 않게 구체적 대상이며 두뇌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그의 사고과정에서 실증주의적 잔재가 잔류함을 뜻한다. 따라서 문제시되는 것은 랑그의 추상성 정도인데 그는 *Cours*에서 추상성의 정도에 관해서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구체적 대상으로서 랑그에 위상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¹¹⁾ 이러한 이분법은 전통적으로 이미 서양의 정신사에서 자연과 예술, 정신과 물질, 존재와 본질, 존재와 의식 등 개념적으로 대립되는 쌍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분법은 Saussure의 언어 연구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그가 언어 자체를 이원적 즉 언제나 양면적 특성을 지닌 구성물로 간주했는지 또는 이러한 구분이 오직 이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9) 이러한 구조는 고립된 사실의 집합이 아니고 모든 요소가 상호간 연관관계에 있는 응집된 총체다. 현대 인공두뇌학적, 체계이론적 의미론 구조는 집합요소의 조직(즉 요소간의 연결방식)이고 기능은 요소상호간의 작용방법이며 체계는 구조와 기능의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조주의언어학은 언어가 체계라는 기본적 가정에 바탕을 둔다(Helbig 1973, 48).

10) 자세한 것은 권재일 외 1999 49~72참조

11) Koerner(1973, 245)는 랑그를 추상적 가치체계로 또는 경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질적 자료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는 해설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강조했다.

연구대상에 부여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¹²⁾

Saussure는 *Cours*에서 가설적-연역적 방법을 근간으로 언어학 정립을 시도했다. 그는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지 않고 자유로이 선택된 이론적 가정의 도움으로 이상적 연구대상을 형성하는 학문적 행동양식을 요구했다. 그의 이론적 주체가 되는 랑그는 이러한 구성물이다. 예컨대 랑그-빠롤, 공시대-통시대 등의 대립쌍 즉 언어의 연구대상은 이론적 관심에서 창조된 구성물이다. 사실의 논리가 학문의 논리에서 생성된 셈이다.¹³⁾ 결론적으로 기술언어학의 연구대상은 이론적 구성물로서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추론해 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체계의 정의와 더불어 내재적 언어개념이 생성되었는데 이러한 개념의 극단적 모델은 Kopenhagen 학파(Glossematik)에 나타난다(Scheerer 1980, 745f.).

Saussure 언어학의 이론과 연구방법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자는 현대 언어학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의 가장 중요한 이론인 랑그-빠롤의 개념체계¹⁴⁾에 관해서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Cours*에서 전개된 Saussure의 랑그-빠롤 개념 형성과정을 고찰해본다면 그 형성과정은 얼마나 임시적이고 불완전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부정확성과 내적 모순성에서 이미 랑그나 빠롤 중 어느 하나를 정의하거나 그 중간개념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ibid. 85). 또한 Godel의 랑그-빠롤의 존재에 관한 분석에 의하면 첫 번째 강의(1891)에서 빠롤이 언어

12) 이분법이 객관적이고 대상 그 자체에서 추출되었는지 또는 이론적으로 연구대상에 적용되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그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그가 이분법을 절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구체화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편 그가 대립쌍을 형이상학적으로 취급했다는 주장도 있다(Welke 1976, 543).

13) 이러한 사태관계가 바로 명목론 또는 관습론이라고 지칭되는 인식론적 입장이다.

14) 언어능력 *langage*은 랑그-빠롤의 개념쌍에 대해서 기호 *signe*가 기표 *signifiant*-기의 *signifié*, 구조 *Struktur*(구조 또는 체계 *System*)가 계열적 *paradigmatisch*-통합적 *syntagmatisch*에 관해서 갖는 것과 동일한 관계를 지닌다. Saussure의 언어능력에 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이고 또한 전과학적 의미로 언어를 뜻한다. 따라서 언어능력은 그 자체의 다양성과 부조화 때문에 언어학의 연구대상으로서 부적합하다(Koerner 1973, 25).

학의 우선적 연구과제로 취급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두 번째(1894)와 세 번째(1908/09)강의에서 비로소 *Cours*의 기본개념이 간략하고 대립을 격화시켜 불완전한 형태로 정립되었다(Koerner 1973, 221ff.).

랑그가 언어학의 연구주제가 되고 또 출발점이 되었을 때 표면상으로 연관성이 없이 무질서한 현상이 질서정연한 이상적 연구대상으로 설정된다. 랑그는 규칙의 체계 즉 언어표현상의 총화이며 또한 의미와 음성영상의 결합에 의해서 구성된 언어기호다. 이러한 체계와 총화는 형식으로서 개인집단이나 사회공동체 집단의 두뇌 속에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랑그가 질료적으로 실현된 현상(언어행위)을 *빠롤*이라 부른다(Saussure 1983, 23~32).¹⁵⁾ 사회적 특성과 함께 체계성은 랑그의 본질적 특성이다. 랑그는 어휘와 문법규칙의 평균치로서 언어학의 본질적 연구대상이며 또한 분리해서 고찰할 수 있는 정확히 음역된 대상이다(ibid. 31). 또 한편으로 Saussure(ibid. 40~43)는 랑그-빠롤의 구별과 연관지어 내적 언어학과 외적 언어학을 구분했는데 전자는 체계로서 랑그와 관련되며 언어의 인종학적, 역사적, 지리적, 또는 방언적 현상에 관한 연구는 후자에 속한다.

Saussure가 랑그를 언어학의 이상적 연구대상 즉 요소와 규칙의 잠재적 체계로 간주한다면 동일한 언어공동체에 속하는 통계상으로 대표되는 많은 구성원들 언어행위의 총화는 *빠롤*에 속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랑그는 대량이 아닌 소량의 언어자료에 의해서 표현되며(Corneille 1976, 27), 개인의 언어행위를 토대로 해서 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Fuchs/Le Goffic 1975, 11). 주지해야 할 사항은 Saussure가 랑그-빠롤을 구분함으로써 이중 이분법 *Doppeldichotomie* 을 도입했다는 사실이다(Albrecht 1988, 28f.):

	본 질 적	부 차 적
사 회 적	랑 그	랑 그'
개 인 적	랑 그"	빠 롤

15) 언어학자들은 일반언어 이론정립의 목적으로 *빠롤*을 희생시키고 랑그를 강조하여 한층 더 추상화하거나(Hjelmslev, Brøndal 등) 이와 반대로 구체적 언어기술을 목적으로 *빠롤*을 강조하고 극명하게 정의하기도 했다(Trubetzkoy, Bloomfield 등).

위의 도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두 요소 즉 랑그와 빠롤의 분배영역은 동일하지 않으며 교차분류의 형식을 통해서만이 정확히 표현된다.¹⁶⁾ 랑그'와 랑그"는 이중 이분법을 통해서 이론화된 개념인데 Saussure가 *Cours*에서 제시한 랑그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으며 적어도 제외되어 있지는 않다. 본질적-부차적의 구별과 더불어서 체계의 기능을 위한 유관적-무관적 또는 잠재적-실제적 유형의 구별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Saussure의 해설자들은 이러한 이중 이분법의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부분의 해설자들(Bierwisch, Helbig, Koerner 등)은 개념쌍 본질적-부차적(잠재적-실제적)이 랑그-빠롤을 구별하는데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지만 이와 반대의 견해를 표명하는 학자(Lepschy 등)도 있다. 또 다른 학자들(Corneille, Fuchs/Le Goffie)은 매우 추상적 상위개념을 가정함으로써 이분법의 완결성을 추구하려 했다.

랑그-빠롤의 이분법적 구분은 표면상으로는 명확하고 논리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면밀히 고찰해 보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물론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Hjelmslev(1942, 29~44)가 처음으로 Saussure 랑그-빠롤의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이것을 언어구조 Sprachbau-언어사용 Sprachgebrauch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Saussure의 이분법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Pierson(1953, 1~6)도 또한 랑그-빠롤의 구분이 본질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에 의하면 Saussure의 랑그는 사전과 문법에서만 존재하며 통사체로 구체화되는 즉시 빠롤로 전환된다. 즉 랑그와 빠롤의 관계는 어휘론적-통사론적 관계에 상응한다. Trnka(1964, 1) 역시 Saussure 랑그-빠롤의 이분법적 구분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며 또한 혼란을 야기하므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⁷⁾

16) Coseriu 1967, 47~52 참조할 것.

17) 랑그와 빠롤의 구분은 처음에는 매우 고무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보였지만 현재 이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불확실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랑그가 잠재적 체계라면 그것은 동일한 언어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의 두뇌 속에 내재되어 있지 않고 개개인의 두뇌 속에서 잠재적일 뿐이다. 개인의 빠롤과 그의 랑그 사이의 차이가 표현적이고 또한 잠재적이다. 따라서 랑그가 항상

위의 견해와는 반대로 랑그-빠롤의 이분법은 정보이론 학자나 언어 통계학자들에게는 자명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통신 과학자들에게는 기호와 전달은 자연스러운 이원성이다. 즉 기호의 실현으로서 전달은 랑그의 적용결과로서 Saussure의 빠롤에 정확히 상응한다. 통계학자 G. Herdan에게도 랑그는 통계상의 총체이고 빠롤은 임의 추출본이다. 또 한편 Jakobson과 Martinet에게도 기호와 메시지의 대비는 자명한 사실이다(Szemerényi 1971, 46). Chomsky(1965, 4)의 언어능력 competence-언어수행 performance도 Saussure의 랑그-빠롤에 상응한다.¹⁸⁾

주지해야 할 사실은 1952년에 Coseriu(1967, 11~131)가 랑그-빠롤의 이분법적 개념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언어를 체계 System-규범 Norm-담화 Rede로 구분함으로써 Saussure의 이분법에 관한 제 삼의 가능성으로서 수정이론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랑그를 체계, 형식 그리고 초개인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면 그 대립개념인 빠롤은 비체계적, 질료적 또한 개인적인 것으로 파악되어야 마땅하다. 그 때문에 Coseriu는 Saussure의 이분법은 언어의 유일한 실제성(언어활동 Sprachtätigkeit) 즉 개별적 화자의 언어행위 Sprechakt에 기초한 일원론적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구체적 담화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추상화를 한다면 이러한 언어의 유일한 실제성은 또 다시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 담화에서 개인적이고 고유한 것을 모두 제거한다면 일반적 언어 사용법 Sprachgebrauch (usage) 즉 규범만이 남는다. 물론 규범과 언어행위와 마찬가지로 언어 사용법과 규범을 체계의 실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체계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Szemerényi 1971, 46):

빠롤	언어 사용법	랑그
구체적 실현	평균적 규범	기능적 체계

체계의 구분은 Saussure 이분법의 직접적 구성요인이 아닌 본질적-부차적(기

잠재적이라면 랑그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관찰될 수도 없다(Spence 1957, 1~27).

18) Chomsky는 단순한 정적인 재고목록으로서 Saussure의 랑그개념을 거부했다.

능상으로는 유관적-무관적) 요인을 토대로, 규범¹⁹⁾은 사회적-개인적 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되었다.

담화는 빠를에 상응한다. 상위의 기준으로서 기능적 유관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규범은 체계의 부분집합이다. 그 이유는 체계 안에서는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의해서 언제나 그 중 어느 부분만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구속력의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체계는 규범의 부분집합이다. 왜냐하면 방해받지 않고 통신매체를 통한 언어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어관습의 어느 한 부분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Saussure는 언어이론을 공식적으로만 유효하고 내재적 관련체계의 토대 위에서 랑그에 제한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는 또한 그 자체로 완벽한 체계로서 언어개념을 설정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Humboldt와 C. Heyse가 강조한 에네레기론적 구성요소(인간의 사고행위에 의거한 체계로서의 언어)를 언어이론에 재도입하고 이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론화하려고 시도했다(Jäger 1975, 199ff.). Saussure는 또한 *Cours*에서 논의되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개념논쟁에서 표출된 한층 더 특수화된 개념보다 더 다양한 랑그-빠를의 관계를 구상했다. 그는 원래 랑그-빠를의 이분법을 설정하거나 그 개념 중 어느 하나에 학문적 우위성을 부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어느 경우에 유효한 랑그를 언제나 필연적으로 중재하는 빠를을 바탕으로 언어적 의미의 발생사의 매체와 더불어 언어 역사성의 매체를 설정하려고 시도했다(ibid. 236).

Saussure는 역사-비교언어학의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을 극복하고 체계가 중심의 구조주의언어학을 정립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언어를 기호체계로 정의하고 언어학과 다른 학문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한 데 있다. 그에 의하면 언어학은 언어학 특유의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랑그와 빠를의 비변증법적 구분, 언어체계 개념의 절대화 그리고 공식태와 통시태의 분리 등을 통해서 언어학의 연구대상을 축소 또는 제한하는 결과를

19) 언어공총체의 구성원에 구속력이 있는 모든 것이 언어규범에 속한다.

초래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화용론적 관점에서 보면 연구대상의 범위축소 및 체계개념의 축소 등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²⁰⁾ 기호체계가 언어의 본질 즉 언어의 모든 양상을 포괄할 수 없다. 언어학의 연구대상에는 언어체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언어의 사회적 기능, 심리적 요인 및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언어학 연구대상 확충의 원인이 단순히 연구대상인 언어 그 자체에 있다고 보는 견해는 너무나 단순하다. 대상이란 인간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며 인간의 인식과정을 통해서 반영되는 객관적 실체의 현상이다. 대상에 관한 특정한 접근은 특정의 관심과 목적을 토대로 인식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연구대상은 이러한 접근에 의해서 증개되는 대상의 부분들이다. 이러한 접근을 근간으로 하여 학문의 연구대상이 확정된다(Hartung 1974, 79ff.). 기호체계는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특정의 언어 외적-사회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언어는 인간이 상호간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서로 이해할 수 있게(인지작용) 하기 위한 수단(도구)이다. 따라서 언어는 오직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 속에 존재한다(Suchsland 1971, 196).

Saussure의 이론에 대한 어떤 평가나 비판도 그 당시 철학적 사조와 인식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욕구와 학문적 발전경향에 상응하여 그 당시에는 필연적으로 언어체계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식이 필요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그의 이론의 핵심인 체계개념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언어학 연구대상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언어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의 체계개념은 젊은이문법학과의 원자론적이고 심리적 개념의 반명제인데 그 개념 그 자체가 이미 실증주의적 철학에 빠져 있다(Růžička 1971, 12f.). 바로 이러한 한계성이 체계의 일방적

20) 언어학의 연구대상을 언어체계만으로 제한할 경우 1) 언어와 관련된 다른 모든 현상과 언어와 연관되어 제기된 문제가 언어외적 사항으로 명시되고, 2) 언어의 심리적 양상은 물론 사회적 요인과 또한 그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가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Motsch 1974, 49f.).

절대화 즉 언어의 다른 양상의 비변증법적 분리를 야기했다.²¹⁾

기호체계에 관한 연구는 언어 고찰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인식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상화되는 추상개념을 절대화하는 한 Saussure의 이론은 변증법에 위배된다. 연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한시된 총체적 연관관계가 인정되고 또한 고려된다면 모든 이상화된 추상개념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이상화는 궁극적으로 객관적 실체의 한층 더 포괄적 연관관계를 규명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의 이론에서는 언어의 개별적 양상(언어체계, 내용과 표현의 형식 등)이 절대화되었고 또한 이러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언어행위의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Saussure의 공시대와 통시대 구분 역시 비변증법적이지만 언어학은 언어사이며 언어의 역사적 연구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과학적 언어의 기술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젊은이문법학파의 언어 고찰방법의 분명한 극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이전의 편파성을 새로운 편파성으로 극복한 셈이다. 실제로 공시대와 통시대는 서로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연구방법이다. 왜냐하면 공시대는 발전사적 연속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체계에 관한 공시적 연구방법의 상대적 우위성은 체계개념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된다.

이러한 언어연구의 방법론적 구분은 필연적으로 체계가 구조화되었고 따라서 그 역사는 언어의 개별적 요소변화의 역사뿐만 아니라 체계변화의 역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체계변화의 과정은 이러한 체계의 상태에 관한 기술을 통해서만이 기술될 수 있다(Motsch 1974, 57f.).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적 분리와 공시대의 상대적 우위성이 Saussure에서와 같이 통시대의 절대적 구분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적인 것(통시대)을 체계의 인식에 본질적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완전히 독립적 차원으로 간주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체계의 구조는 정적 구조로 나타나고 그 내적 발전과정이 무시되거나 외적 우연성에 의존하는 현상으로 인식

21) Saussure 광범위한 체계개념을 언어의 기호체계에만 제한해서 사용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체계를 언어요소간의 관계로만 규명했다.

되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19세기의 실증주의적-원자론적 고찰방법이 그에 의해서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부분적으로 극복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언어의 개별적 현상에 대한 격리된(일방적) 고찰방법은 그의 공시태와 통시태의 변증법적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별적 체계의 실증주의적(또다시 격리된) 연구방법에 의해서 대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Helbig 1986, 64).

5. 변형생성문법

변형생성문법 정립의 근본목적은 인간 특유의 언어능력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문법이론은 Chomsky의 *Syntactic Structures*(1957)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후천적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언어이론을 비판하고 언어능력을 인간 고유의 천부적이고 생득적 능력으로 간주하는 이성주의적 언어관을 토대로 언어이론을 전개했다. 그는 행동주의와 반유심론을 근간으로 한 Bloomfield 학파 언어이론의 모순성과 편협성을 지양하고 구조주의언어학이 젊은이문법학과의 역사-비교 언어학의 부정과 동시에 극복인 것과 같이 변형생성문법을 특정의 사회적 조건과 철학적 개념하에서 정립된 구조주의언어학의 극명한 극복으로 간주했다(Hartung 1974, 160f).²²⁾

원래 Chomsky(1957)는 언어학을 하나의 독자적 학문으로 정립하려고 시도했지만 후에 언어학을 인식심리학의 한 분야로 취급했다(Chomsky 1968, 59).²³⁾ 그 결과 변형생성문법은 심리학과 연관관계를 맺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언어

22) Chomsky도 언어학을 과학적 학문으로 정립한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의 엄격한 언어 분석 방법을 높이 평가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언어학의 본질적 문제를 취급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비판했다. 물론 그들은 언어의 연구대상을 좁힘으로써 연구대상을 심도있게 고찰할 수 있고 또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언어의 광범위하고 본질적 문제를 완벽하게 해명할 수는 없다.

23) 이러한 발전경향은 Chomsky(1965)에서 시작되었고 Chomsky(1966, 1968)에서 한층 더 명백하게 되었다.